

10/9/22

설교 제목: 마리아의 특별한 헌신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12 장 1-11 절

(요 12: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절관주** 요 11:1, 요 11:44

(요 12: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요 12: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 12: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요 12: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 12: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흠쳐 감이러라

(요 12:7)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요 12: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막 14:7

(요 12:9)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절관주** 요 11:44

(요 12:10)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절관주** 눅 16:31

(요 12:11)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절관주** 요 11:45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의 여정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전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때부터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살해 시행 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겨 죽여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38 년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생각만 했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법적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해 죽이려 합니다.

(요 11:57)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라도 예수님은 유월절 옛새 전에 버젓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유월절을 옛새 앞두고 예루살렘 근처에 담대히 모습을 보인 것은 이제 당신의 때 곧 십자가 죽음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 12:1) 유월절 옛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번 유월절은 예수님 공생애 중 네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셨고 두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38 년된 병자를 고치셨으며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약 2km 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고로 평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 오시면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 집이나 문둥이 시몬 집에 머무시곤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날도 예수님은 시몬 집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려 주신데 대한 감사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요 12: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그 자리에 함께 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또한 마르다는 음식을 장만하는 등 잔치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특별한 헌신을 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러자 온 집 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됩니다.

(요 12: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드(nard) 향유는 해발 3000 미터 이상의 고산지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동인도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비쌌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 향유를 결혼할 때 가지고 가서 신랑과 귀한 손님들을 위해 조금씩 사용하곤 했습니다.

마리아도 자신의 결혼을 위해 소중하게 간직해 놓았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마리아는 평소에도 예수님을 지극히 존경하였으며 특별히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모두 부어 드렸습니다.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 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일은 노예가 담당했습니다.

또 여인이 머리털을 푸는 것은 창녀들이나 하는 짓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개의치 않고 그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행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때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가 나서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요 12: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요 12: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 12: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놓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본서에서는 가롯 유다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등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모두 이렇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 26:6)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마 26: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 26:8)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 26:9)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마 26:10)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본서 저자 사도 요한은 가롯 유다 이름만 적시하고 특별히 그를 지적하여 돈궤를 맡고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진작부터 제자들 하나 하나의 성품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당시의 상황에 휩쓸려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가롯 유다는 물질에 탐심을 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가난한 자를 끌어다 대는 위선적 행동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에 이렇게 단정해 말한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탐욕을 숨기고 빈민 구제를 구실 삼아 마리아에게 트집을 잡습니다.

가롯 유다는 위선자였습니다.

후에 가롯 유다는 탐욕 때문에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은 30 냥에 팔아 넘기는 무서운 죄를 범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눈이 먼 자였습니다.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겠지만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돈을 사랑하는 헛똑똑이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죄책감에 목매달아 죽고 맙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인생의 전부로 여긴 자의 최후입니다.

일 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의 일 일 품값이었으므로 삼백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삼백 일을 일해야 만질 수 있는 큰 돈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가롯 유다는 세상에 눈이 어두워 물질만 귀하게 여겼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존경이 없었습니다.

헌금과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자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로 계산할 수도 없고 계산되어져서도 않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되신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가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당신 것인데 우리가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한 과부의 동전 두 렵돈에 감동하셨던 분이십니다.

(막 12:41)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막 12:42)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막 12:43)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막 12:44)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는 가롯 유다를 제지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게 마리아가 지금 당신에게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을 중단시키지 말라고 마리아가 당신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12:7)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요 12: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으로 알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장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선 순위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에는 먼저 해야 할 급박한 일과 나중에 해도 되는 일, 꼭 해야 할 중요한 일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 아무리 급하다고 한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보다 급박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그들 곁에 있지만 예수님은 때가 되어 이제 곧 그들의 곁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본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보답하십니다.

(마 26: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몰려 들었습니다.

(요 12:9)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로 인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예수님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요 12:10)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요 12:11)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구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 한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예배의 관습에 길들여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리고 오직 외식하는데만 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 들었을 때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렇지라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 표적으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하고 시기하여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 합니다.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예수님을 섬깁니다.
또 다른 부류는 가롯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쫓아 다니기는 하는데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나머지 부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이 성경도 열심히 연구하고 종교 의식에도 열심이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식에 젖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항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 세 부류가 모두 종교 안에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세 부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당장 구별해 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들을 구별하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마 3: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 부류 각각의 나중은 하늘과 땅 만큼이나 다를 것입니다.

알곡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고 쭉정이는 유황 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제서야 쭉정이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슬퍼하며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되돌리기에 이미 늦었습니다. Too late!

(마 13: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 13: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마 13:42) 풀무 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 13: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시간은 여러분에 주어진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무한정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알곡되어 천국에서 만나십시다!